



미얀마 시위 (사진 출처: BBC NEWS 코리아)

신자들에게 공지하신 바 있었는데, 현재 광주지역의 불행한 사태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는 새로운 청원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기경께서는 숫자를

알 수 없는 사상자들을 낸 유혈사태를 분명하게 언급하시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언론이 모두 통제되는 상황에서 이런 언급은 서울주교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확인되지 않은 뉴스는 SNS가 발달한 오늘에 못지않게 무분별하게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보도가 사람들을 더욱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 같습니다.

1980년 6월 8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주보 2면에 ‘구호보다 올바른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주보는 지난주 명동대성당에서 사회복지회 주관으로 광주사태 중상자들을 위해 헌혈이 실시되었고, 수집된 혈액 및 약품과 함께 간호 수녀 8명과 의사인 교구소속 김중호 신부가 광주로 급파되었다고 전합니다. 이 언급만 보더라도 광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소식이지만 당시 광주에서 혈액이 모자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때 광주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헌혈뿐이라며 윤락여성들도 헌혈대열에 참여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광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광주인사들은 서울대교구에서 급파된 신부·수녀들에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지원이 아니라 광주의 진실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라 말했다는 소식을 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언론을 통해서는 정확한 피해자 수는 물론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도 보도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주교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라 규정한 점은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할 때, 용감하다는 말로는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한국 언론에 재갈이 물려 광주라는 단어조차 올리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서울주교가 이런 주장을 실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40년 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 현재 군부가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는 미얀마의 불행한 사태와 똑 닮아 참 마음이 아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지해야 하겠습니까. 위장자도
인간인도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결
내세워서 안 될 것입니다. 감정의
침범을 벗어 버리고 형제적 화해의
마련해야 하겠습니까.
분, 이 땅에 회개와 화해의 성령
으로 기도합시다. 이미 여러
에게 결정 철야기도로 하느님께
입니다.
모든 교형자들은 지
에 애원해야 되겠습니까. 각
원에서 우리 아버지가신
용서와 은총을 간청해야
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 받은 유배지에 눈물
고향땅에 둘러 보네
기도도 들어주시길
모든 형제의 영원
이 일고 있는 모든
을 되찾고 위정자
여망이 무엇인
나날을 보낼 수
부합니다.
23일
한 추기경